



전면 파업 23일만에 원청 책임 이끌어 낸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조-현대모비스-인수사 3차 합의 명사... “투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단결과 동지들의 연대 투쟁 덕분”

지난 19일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가 파업 23일 만에 원청인 현대모비스와 의견 접근안을 도출했다. 지회는 20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의견일치 내용을 승인했다.

의견일치 내용은 원청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 인수사(현재 OP모빌리티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램프사업부 연구소 거점과 연구인력 규모 100% 유지 ▲생산 인력 100% 고용승계 ▲노동조합 동일 유지 및 단체협약 저하 금지 ▲매각 이후에도 고용안정 및 물량과 투자 정기 협의 등을 분명한 계약조건으로 반영하고 최종 매각 합의서 체결 시 반드시 현대모비스-인수사-노동조합 간 3자 합의하는 것이다.

원청인 현대모비스에 노동자 고용과 노조 활동, 그리고 물량과 투자 모두의 책임성을 강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합의이다.

26일 오전 경주에서, 23일간의 전면 파업 투쟁과 교섭에서 원청의 책임을 끌어낸 정진홍 경주지부장과 심상우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장을 만났다.

파업투쟁은 23일이지만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부 일방적 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은 지난해 5월경부터 시작됐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심상우 :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심경이 더 복잡하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OP모빌리티에 매각될 경우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OP모빌리티에 넘어가더라도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OP모빌리티에 넘어가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외 자본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물량을 줄이고, 수익이 안 나면 물건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합의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진홍 : ‘일방적 매각을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투쟁이었다. 미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어서 고민이

깊었다. 매각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투쟁은 사실 흔치 않았던 것 같다. 그동안은 ‘해외 투기 자본 반대’, ‘매각 반대’만 해 왔었다. 매각 저지를 완벽하게 막지 못했고 원래 우리 요구보다 다소 양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매각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인수자가 생기면 3자 합의를 하자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가 합의 주체로 나온 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합의가 정말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투쟁에서 반드시 쟁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무엇이었나.

심상우 : 조합원들의 전체 고용 보장이 최우선적인 목표였다. 다른 거 보지 않았다. 우리 조합원들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고용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우선이었다.

정진홍 : 현대모비스가 직접 합의 주체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파업 22일 차에 합의 주체로 나왔다. 법적으로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장과 대화하라는 게 원래 그들의 입장이었다. 근데 현대아이에이치엘은 매각 과정에 결정권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현대모비스가 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우리 요구안을 본 계약 체결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그건 높은 수준의 요구였다. 김천현대모비스지회랑 같이 싸웠으면 매각이 안 났을 거라고 확신한다. 김천현대모비스지회가 이탈하면서 어쨌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수자가 생기면 반드시 3자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비스가 우리하고 합의해 본들 법적 효력은 없다. 매각하는 사람이 고용 승계한다, 책임진다고 하는 게 법적 효력이 없어서다. 우리 요구가 매각에 반영돼야 하고 3자 합의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투쟁 목표였다.

김천현대모비스지회가 투쟁대열에서 이탈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땠는지?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나?

심상우 : 김천현대모비스지회가 이탈했을 때 현장에 혼란이 온 것은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심하게 분노하기도 했다. 그날 지부장 주관하에 공동 회의를 긴급히 열었는데 모트라스, 유니투스 동지들이 우리 조합원들을 믿고 계속 공동 투쟁해야 된다는 결단을 내려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

었다. 그래서 가장 큰 계기가 사실 공동 투쟁, 연대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 연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연대가 없었더라면, 우리끼리만 싸웠더라면 이 투쟁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느낀 점이 아주 많다. 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느낀 게 많다. 노조 활동의 역사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는 지회는 다 승리를 했더라. 그 또한 우리 조합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완벽한 합의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쟁취했다고 생각한다.

정진홍 : 개인적으로 (김천현대모비스지회) 이탈한 날이 제일 힘들었다. 조합원들께 송구하다. 고립되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김천 현대모비스, 연구소, 사무직, 유니투스 4개 사업장, 그리고 모트라스까지 같이 싸워서 반드시 현대모비스에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김천 현대모비스지회) 이탈하니까 너무 송구했다. 그 과정에서 남은 우리 동지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결정된 대로 싸워 나가자고 한 게 저희 조합원들에게 힘이 됐고, 저도 힘을 많이 얻은 계기가 됐다. 이탈한 지회 조합원들에게 실망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였다. 그들이 그렇게 이탈하는 했으나 우리 힘만으로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했다. 현대 아이에이치엘은 지분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고용승계가 되어 있다. 이번에 우리가 싸운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다. 앞으로도 자회사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현대모비스가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동지들과 같이 싸워서 우리 합의에 넣게 됐다.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구조 개편할 때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본 거다.

집회 발언 등에서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현대모비스의 일방적인 구조 개편과 연관된 문제라고 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 현대아이에이치엘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의 유지를 합의했더라도, 산업구조 개편으로 연쇄적인 매각 및 구조조정 등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노조가 대비해야 할 투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심상우 : 사실 이게 말이 사업 개편이지 경영권 승계다. 자본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 금속노조에서 이 문제를 주관하는 공동대책위를 꾸렸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개편 또는 매각에 대응하여 금속노조가 전체적인 투쟁을 통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진홍 : 이번에 유니투스 4개 지회 동지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다. 11일에 김천현대모비스지회가 이탈했고, 유니투스 4개 지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지회 조합원들을 위해서 연대 투쟁을 해 왔는데 투쟁의 주체, 연대의 대상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13일 본사 결의대회를 그대로 진행하고, 18일에 전 조합원 8시간 파업도 결의했다. 그리고 김천 램프 사업부 옆에 에어백 지회에서도 조합원들이 다 모였다. 기존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2천 명에 가까운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해냈다.

금속노조는 이 경험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한 번 싸워 본 경험이 있다. 모비스 구조 개편 대책위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유니투스 4개 지회 동지들뿐만 아니라, 모트라스 동지들도 열정적으로 쟁의도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런 열정, 에너지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걸 잘 담아내서 싸우면 될 것 같다.

투쟁을 승리로 결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력일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싸워온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합원들과 지회에서 파업 투쟁의 최선봉에 섰던 이창현 부지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심상우 : 이번 승리는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주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또 지부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늘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함께 투쟁한다면, 매각 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조합원들께 늘 감사하고 고맙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힘 있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번 투쟁을 통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레 느꼈다. 그리고 지도력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다. 내가 잘못 갈 수도 있는 걸 바로잡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지부장님을 비롯해 모트라스, 유니투스 동

지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끝나고 우리 간부들도 대부분 울었다. 이것도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매각 후에도 우리가 더 힘 있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진홍 : 고생 너무 많았고, 믿고 따라줘서 고맙다. 23일 파업이 어렵지 않나. 조합원들이 잘 버텼다. 지회장님이 편찮으셔서 우리 이창현 부지회장님이 책임을 지게 됐는데 힘들었을 거다. 그런데 잘 버텼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도 많이 줬다. 이번 싸움이 우리 조합원들에게도 이창현 동지에게도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투쟁과정에서 동지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성장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잘 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의 램프사업부 해외 매각이 AI 개발 등에 비용을 투자하기 위한 산업전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대책과 투쟁 준비를 위해 5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대모비스 구조 개편 대응 금속노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고 총 7개 지부 15개 지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현대모비스 구조 개편 대응을 조합 차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